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2.23.(목)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등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부장

1. 다음 회의 일정

- 3월 일정 : 3월 30일(목) 오후 3시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 한 달 동안 연합뉴스TV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균형감 있게 보도했다고 판단함. 특히 튀르키예 지진, 정치권 관련 기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점이 인상 깊었음. 튀르키예 지진 사태에서, 특파원 연결 등 현장감 있는 보도 돋보였다고 생각함. 사태 초기 지질전문가를 아침시간에 초대해 판과 판이 충돌한 때문이라고 사고 원인을 발 빠르게 소개하였음.

- <생생현장>, <전국은 지금> 코너를 통해 각지의 소식을 생동감있게 보여준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충남 예산시장, 대구마트 평일의무휴업 진통, 강원 스키장 리프트 사고, 농가 딸기재배 소식 등 다채로운 소식들이 흥미롭게 소개되었다고 생각함. 지역 뉴스는 연합뉴스TV의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연합뉴스TV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짐. 지역뉴스 interviewee로 자치단체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 꼭 필요하다면 시장, 군수가 나와야 하겠지만, 자칫 홍보성 기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람.

-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예를 들어, 교육, 노동, 건강, 음식, 환경, IT, 소수자 등)에 대해 심층 보도가 기대됨.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item에 더 관심 가져 줄 것을 기대함.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눈에 띄는 행사가 있어 리포트할 때 마침 그 행사가 지자체 주관이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도 않은데 무조건 지역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지자체장을 인터뷰한다면 자칫하면 지자체장 홍보를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 기자들에게 이런 지적도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요즘, TV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다 비슷하죠. 정치적인 사건들 다 큰 대형 사건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저희도 그런 문제 인식은 있습니다. 확실히 뉴스가 나가지 않는가 어느 채널을 틀어봐도 똑같은 뉴스가 나가고 있는 현상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률에 대해서 의식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있는 뉴스, 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야지 시청자들이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니 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시청률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고 방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 방송임을 잊지 않고 시청자에게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고 특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연합뉴스TV의 경우 전문가의 대담이나 토론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오는 이유는 시청자의 입이 되어주고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책, 사회, 시사적인 면들을 다룰 때 시청자들이 보다 편하게 알기 쉬운 배경, 사건의 전·후 상황, 그 일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또 문제가 없다면 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청자의 눈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을 이해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청하기엔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을 하거나 그래프, 통계수치를 사용할 때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비교수치를 넣어서 보다 자세히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바램이 있다면 연합뉴스의 보도 채널이긴 하지만 기획 기사라든가 아니면 시리즈 물이라든가 탐사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볼거리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인포그래픽이라든가 대담의 사전 준비 문제는 앞에 다른 위원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양한 제작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킬러 콘텐츠라고 보통 얘기하죠. 일반적인 뉴스 말고 다른 채널에 없는 대표 상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숙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제작을 담당하는 콘텐츠제작부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제반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02.10 [월드잇슈] 미국 장군의 섬뜩한 예언---조만간 미국전쟁 벌어진다고?> 미.중 '진짜' 전쟁? 섬뜩한 예언 나온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시점인 2025년을 또한 미중 전쟁 발발 시점으로 예상하는 미국 4성 장군 개인의 예언을 기사화 한 것으로 객관성 보다는 개연성을 위주로 한 기사로 보여집니다. 무역 거래량 등 미국과 한국 등 중국 의존도가 극대화 되어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미중 전쟁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자극적인 내용이라 기사 전달을 좀더 차분하게 전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2025년에 미중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중국과 대만,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의 대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기사 영상 편집, 음향효과 및 배경 음악이 너무 커 산만하고 과장되어 기사 내용의 집중도가 떨어짐. 취재기자의 기사 전달 음성이나 전달 속도 등 전반적으로 프로파간다식 선동의 이미지가 강해 뉴스라기 보다는 관련 이해집단 선전 광고를 보는 듯 합니다. 필요 이상의 긴장감을 주는 기사임.

▲ 추승호 보도본부장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트렌드가 모바일이고 또 유튜브이다 보니까 TV수상기용이 아닌 유튜브 전용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잇슈'도 원래는 디지털 유튜브용 전용 콘텐츠입니다. 유튜브용 전용 콘텐츠는 아무래도 좀 티비 수상기에 나오는 제작물과는 달리 편집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나레이션 같은 것들이 조금은 톡톡 튀고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체가 아닌 보도 채널에서 만드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마치 2025년에 미중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을 근거 없이 조성한다고 하면 안되겠죠. 보도 채널이란 본령에서 벗어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연합뉴스TV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경제 관련 뉴스 리포트 시 구체적인 데이터나 근거가 제시 필요,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2.12일, '3%대 주택담보대출 재등장...변동이야 고정이나' 뉴스를 내보냄. 리포트에선 지난해 3월 말 이후 10개월 만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3%대 후반, 5대 시중은행은 4%대 초반까지 내렸다는 뉴스를 전했음. 이로 인해 시중은행에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고,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자 급증했다는 현장 동향을 전함. 그러면서 이 같은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출자들의 무조건적인 고정금리 갈아타기는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총이자 부담금액 자체는 변동금리가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 예상과 중도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인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리포트로 마무리하고 있음. 코로나19 이전 0.5%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3.5%까지 급등하면서 국민의 고통지수가 크게 높아짐.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21년 2~3%대였던 이자가 지난해 말 7%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대출자들이 고통받고 있음. 실제로 월급에서 세금과 공과금, 4대 보험료와 관리비, 식비 같은 꼭 필요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 모두를 주택담보대출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쓴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올 정도임. 이런 면에서 이 뉴스는 시청자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사로 볼 수 있음. 뉴스의 기능이 비판과 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의 지표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경제 뉴스가 아닌가 생각함. 다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시 발생할 수 있는 총이자 부담금액 비교해 준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고리의 주담대로 고통받는 대출자 입장에서 기사의 심층성이나 객관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음. 시청자는 난해하고 복잡한 것보다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을 좋아함. 연합뉴스TV의 뉴스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해야 함. 특히 금리와 같은 경제 뉴스는 좀 더 발품 파는 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시청자들이 쉽게 보고 듣는 뉴스가 제공되길 바랍.

- 기자 리포팅시 음성송출 지연에 따른 시청자 사과 늦어...'눈살' 지난 1. 27일 뉴스17에서는 '1인당 쌀소비 또 최저...과잉공급 해소책 놓고 갈등' 기사를 내보냄. 이날 앵커가 기사의 말머리 소개하고 기사를 연결했는데, 무슨 일인지 수 초간 기자의 리포팅이 나오지 않았음. 다행히 이후 리포팅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기사가 마무리됨. 그런데 기사가 마무리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기 전 '음성 송출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앵커의 사과'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사과 멘트는 없이 뉴스가 진행되다 '뉴스17' 말미에 사과 멘트가 나왔음. 영상이나 음성송출 에러는 즉시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만약 시청자가 송출 에러 난 부분만 시청하고 끝까지 뉴스를 시청하지 않고 채널을 돌렸다면 연합뉴스tv가 이날 사과한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임. 영상이나 음성 송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연합뉴스tv 호감도와 신뢰도를 낮추는 일이지만 작은 사고라 여기고 사과하지 않거나 즉각대응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인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방송 리포트의 형식상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리포트의 분량이 대개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 리포트 안에 시청자들에게 이런 저런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안을 담는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보도를 하려면 리포트 한 꼭지가 아니라 여러 꼭지를 동시에 하는 집중 보도의 형식을 띠어야 하겠죠. 아니면 대담이 좀 길게 다뤄서 자세하게 알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장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은행들이 외부공개용으로 분기 단위로 하고 또 개별 자료도 월 단위로 정도밖에는 집계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대책이 나온 다음에 2~3주간의 어떤 단기적인 동향 알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서 세부 데이터를 담지 못했다. 고정금리라든가 변동금리의 총이자 부담액 변경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은행마다 금리 조건이 다르고 또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상환 기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어서 역시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들어 한 꼭지의 리포트 안에 담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 1월 27일 날 뉴스17에서 상당 부분 오디오가 나가지 못한 그 현상은 당연히 그 즉시 누가 봐도 이상한 방송이었고 실수였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앵커가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은 시청자에게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PD가 꼭 앵커한테 사과를 하라고 콜을 줘야만 그걸 사과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갑자기 서버가 이상을 일으켜서 중지가 되면서 PD가 당황을 해서 사과 멘트를 하라는 얘기를 미처 못하고 수습에만 정신을 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뉴스 말미에 정신 차리고 앵커에게 사과멘트를 시켰다는 설명입니다. 뉴스진행을 담당하는 뉴스총괄부에 앵커와 PD들의 방송사고시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2023.01.29 [연합뉴스TV 출발600] 뉴스보도 : LGU+ 유선망, 두차례 접속장애...'디도스 공

격 추정"> 연합뉴스TV는 전문보도채널로 공정성과 정확한 뉴스보도가 생명이다. 특히 연합 뉴스TV가 보도하는 뉴스 내용을 인용하는 많은 언론사들도 있어 시청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은 매우 크다. 1월29일 출발600 뉴스보도 'LGU+ 유선망, 두 차례 접속장애... 디도스 공격 추정', 보도를 살펴보면 사건에 대한 사실보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측은 장애가 내부 서버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 디도스 공격 때문으로 추정하고,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에서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일반시청자들은 왜 그곳에 신고해야 하는지 추정하기 힘든 사항으로 "사이버침해 대응을 담당하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와 같은 정확한 부연 설명을 통한 일반시청자가 처음 들어도 이해 할 수 있는 정보전달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보도내용 중 "보안당국은 이번 접속 장애가 설 연휴 사이버 공격 주체로 지목된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과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당국'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를 하였으나 보안당국이 어느 부처인지 출처를 확인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사이버침해 대응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LGU+에서 신고를 하여 조사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과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것처럼 언론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침해에 대응하여 조사를 해야 할 담당부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각인 되는 보도가 이루어졌다. LG유플러스 대상으로 잇단 사이버공격은 사회적 이슈화 되어 정부특별조사단이 현장실사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보안문제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정도로 문제시된 사항이다. 금번 연합뉴스TV 초기보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앞으로는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심층적인 취재와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보도 뉴스 자체에서 항상 사건 사고 사회 문제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보도 기사에서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특히 보도 채널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돼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채널을 보다 보면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몇 번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각인이 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폐하고 힘들고 고달픈가라는 이렇게 알게 모르는 스트레스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합니다.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연합뉴스TV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캠페인성 보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한 어떤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보도 기사의 어떤 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서로 간에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어떤 보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보도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그런 이슈들을 이렇게 계속 보도해주면서 진행하면 시청자들이 많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사건 사고에만 국한되어 있는 보도 채널이 아닌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삶에 대한 어떤 건강한 이런 부분에 힐링할 수 있는 캠페인성 보도 기획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시청자 위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의견을 좀 많이 제시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과기부하고 인터넷진흥원은 2000년부터 이미 사이버 신고 접수를 해왔죠, 그래서 정부에서 네이버에 검색을 '사이버 테러신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과기부나 인터넷진흥원이 가동 중인 신고전화 '118' 이런 것들이 많이 자동적으로 뜨고 해서 해당 부서인 경제부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30초에서 40초 정도 되는 단신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다 써주면 길어져서 단신 만들기 어려워진다고 설명을 하구요. 이런 현실적인 애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이 정도의 짧은 문구 정도는 포함시키는데 크게 애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 당국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사이버 테러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을 저희가 보안 당국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당시에 인터넷진흥원 등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샤오치잉'이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아마 언론에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이라는 소스는 좀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해서 아마 보안당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관계 당국이라든가 관계자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익명의 표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체를 하는 것이 원칙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원이 요청을 하더라도 제반 상황을 감안해 밝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하신 캠페인성 기획은 저희가 고려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곧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아니면 나아가야 할 방향, 큰 의제를 잘 잡아서 시리즈로 해볼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

-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보도 관련> 1.30일자 뉴스"윤대통령, 참모들에 "과학기술정책 최우선... 챗GPT 익혀라"보도에서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챗 GPT가 뭔지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해를 전제로 기사를 전달하여, 시청 당시에는 사전 지식이 없는 시청자입장에서 기사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 자막만 보면 보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학기술정책 최우선이 챗 GPT 학습인 것처럼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막 제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으며, 또한 2.3일 뉴스 "챗 GPT 사용자 벌써 1억..... 이스라엘 대통령은 연설문에"이라는 자막으로 위와 같이 오픈 AI의 챗 GPT를 소개하면서, 외국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외국 챗 GPT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에서 우리나라의 챗 GPT의 개발 수준, 나아가야 할 방향, 시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인터뷰도 함께 추가하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일 뉴스 "대통령도 반한 챗 GPT...AI 경쟁속 우리 위치는"보도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노력과 수준을 보도한 것은 후속 기사로서 적절하였습니다.

- <지역대의 학생 모집의 어려움에 관한 보도 관련> 2.1일 뉴스 "출근길 인터뷰, 지원자가 없어요. 눈물의 지방대, 상황은? 보도에서 자막 헤드라인에 자극적으로 눈물의 지방대라고 표현한 것은 보도의 의도는 이해되었지만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뷰 내용에서 기자가 지방대의 상황만을 묻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전문가의 구체적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에 관한 보도 관련> 2.5일자 뉴스"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네"...술값 인상도 대기중"에서 헤드라인 자막이 자극적이고, 예시로 술값이 아닌 서민 생필품을 자막 예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류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주류가격 인상의 불가피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쳐줘서 좋지 않았습니다.

- <기타 : 범죄기사 보도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세한 설명 지양> 범죄기사를 다룰 때, 실행한 방법이나 도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범죄 수법을 가르쳐 주는 효과를 주고 있어, 이런 부분을 보도할 때는 주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 <기타 : 과학전문기자의 활용제안> 과학뉴스는 최신 기술동향, 용어등 새롭게 만들어지

는 수시로 변화하는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바, 과학 전문기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챗GPT는 올해 1월에 나오기 시작해서 갑자기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언론에 등장했을 때는 챗GPT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조금 다소 길더라도 챗GPT라는 용어 앞에 오픈 에이아이(Open AI)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명을 좀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쏟아지는 바람에 챗GPT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목에는 굳이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신이든 리포트의 본문에 오픈 에이아이라는 걸 서두에 붙여주면 충분히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 '눈물의 지방대' 제목은 시청자들이 볼 때 금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 호소력은 있죠. 그러다보니 제목이나 자막을 뽑는 입장에서는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방에 계신 시청자나 아니면 지방대 관계자들이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제목일 겁니다. 그리고 지방대라고 해서 100퍼센트 다 그렇게 눈물 흘릴 상황도 아닐테구요. 저희가 제목을 달 때 수용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 난방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 주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단 것 같은데요. 다만 주류 업계 관계자의 멘트를 넣으면서 뭐든 다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랐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청자들 입장에서선 주류업계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작을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멘트도 넣고, 가격을 올린 업계의 말도 넣고 다양하게 리포트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했을텐데요. 본의 아니게 시청자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형식만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빼거나 오해의 소지가 적은 멘트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기사 다룰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몇차례 받았습시다.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 유의하자고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은 신문이라든가 인쇄 매체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매체다 보니까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지금 신입 기자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채용 직종에 과학전문기자도 들어있어요. 이번에 과학전문기자를 신규 채용하면 과학분야를 경제부에서 빼서 뉴스총괄부내 기상과학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과학 분야 리포트라든가 다양하고 심도 있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진한수 위원

- 2023. 1. 4. [이슈+] "대장동 수익 김만배 생명줄"...측근들 진술 확보, 수사와 재판 관련 소식이기때 패널로 변호사를 참석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정욱 변호사의 경우 이야기를 할 때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앵커 쪽으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 시청자로서는 소외된다는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방송 전에 카메라를 바라보는 요령 등에 대해 주지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법률 용어가 어렵고 함축적이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사전에 대본 등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급적 쉬운 용어로 설명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2023. 2. 11. [뉴스1번지]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 종료, 사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검찰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나와 수사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실무와 전혀 맞지 않거나 심지어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라고 판단하여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오해 내지 선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나 재판 등과 관련한 뉴스 등의 패널을 선정할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뉴스 앵커가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 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서 뉴스를 보는 시청자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시청자는 뉴스를 보면서 진행자나 패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늘 시청자와 눈을 마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패널로 나온 김장수 부원장이 화면에 잡힐 때 계속 뉴스 앵커를 보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 시청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그 정보의 설득력 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패널로 나온 이경 부대변인은 조금 나아서 가끔 정면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주로 진행자나 상대측 패널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말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로서는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화면일 때는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나 혼자 진술할 때는 주로 정면 카메라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사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시선 배분 문제는 방송에 오래 출연하신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원고 본다고 밑에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앵커는 보지 않고 그냥 앞만 계속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만 계속 보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자연스럽죠. 필요할 때는 원고도 보고, 또 앵커도 가끔씩 보지만 주로는 카메라를 응시해서 시청자를 바라보는 게 맞는 시선 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진행 부서에 지적 사항 전달해서 패널들이 인식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뉴스 1번지'란 프로그램이 지금은 조금 성격이 약화된 측면은 있지만 원래는 정치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치 논리에서 풀어나가는 대담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진영에서 나와서 서로의 주장을 펴려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문제 삼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법률 문제를 거론하게 되고 그게 시청자들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법조인이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비취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나와서 대담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실수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정치 논리에서도 진영의 주장을 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섭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뉴스현장] 을지대병원 '태움'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개월 선고(1/11), 2021년 11월에 발생한 을지대병원 '태움' 사망 사건은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악습인 '태움'으로 인해 신입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었는데, '태움'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점, 가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를 시의적

절하면서 상세하게 다룬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한 '사망한 피해자가 '태움'에 괴로워하다가 퇴사하려고 했지만,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다'라는 특약조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해자가 어떤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게 된 판단 이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의외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더욱 유익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①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했을 때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정리, ②처벌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현 제도상의 문제점 언급, ③유사한 사안 예방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약사항'에 대해 도식화하여 화면에 제시를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어떤 사안을 대담으로 다룰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적절한 패널을 섭외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변호사 섭외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변호사만이 과연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적절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동전문가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출연시켰으면 노동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유사한 문제를 대담으로 다룰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담 때 주요 내용을 알기쉽게 도식화해서 그래픽으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때 작가가 패널과 사전협의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 하도록 뉴스진행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 2/13. 13뉴스센터 김대호의 경제읽기中 월급 빼고 다 오른다...직장인 근로소득세 대폭 증가, 월급빼고 다 오르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 세수가 5년만에 70%가까이 증가했다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그 배경이나 향후 전망 등을 다룬 것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이 1900만명 정도된다고 하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세수나 물가상승, 과세기준 총국세 등 다양한 수치가 언급되고, 상대적인 비교도 필요한데 자료화면은 대부분 사무실을 비춰주고 있어 내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언급되는 내용의 보도내용은 가급적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시청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일한 내용의 보도(12뉴스센터)에서도 인포그래픽 없이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수치를 언급.

- (기타) 연합뉴스TV 어플 Live방송 화면 관련, 연합뉴스TV 라이브를 보려면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유튜브, 전용어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용어플 사용시 화면 좌측상단, 우측하단 두 곳에 연합뉴스TV 가 표기되는데, 우측하단에 표기될 경우 자막을 가리게 됩니다(세로보기모드). 작은 부분이지만 자막을 가리지 않도록 신경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방송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경제하고 과학 분야입니다 한번 흘러가는 방송으로 이 어려운 내용을 잘 알아듣기 쉽지 않거든요. 쉬운 말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면 엄청 길어집니다. 경제 대담도 마찬가지로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요. 김대호 박사가 그래도 비교

적 잘 쉽게 설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래픽을 넣고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호 박사와 작가에게 그 부분을 전달해서 조금 더 시청자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어플 라이브 방송 화면에 나오는 연합뉴스TV로고 문제는 알아보니까 저희가 그걸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 이렇게 두 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콘텐츠의 좌상단에 들어가는 것은 몇 초 후면 사라집니다. 근데 우하단에 있는 것은 본인이 설정에 들어가서 그걸 오프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 있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팅하는 거면 그걸 없앨 수 있는데 유튜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 이성우 위원

- [현장의재구성] '한국발 입국자'라더니...자국민 '쑈' 뺀 중국(02.03), 중국 정부가 1월 말에 2월 1일부터 중국 내 공항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의무', '양성 판정시 격리 실시'라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하면서 당시 중국 입국을 앞두고 있었던 분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중단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한 일이 있었고, 중국 외교부가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전문가들은 외교적 보복 조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했을테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던 많은 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도대체 왜?"라는 반응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2월 3일 보도된 '현장의 재구성' 방송은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의 비자 전쟁이 단순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센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언이여 상대 향한 '방역 문턱' 높이는 한중, 중국의 과잉대응이 명백해 보이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 소모적 갈등 피할 현명한 해법이 필요한 때..."라는 클로징 멘트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메시지였고 해당 뉴스 또한 전체적으로 구성이 짜임새 있고, 유익한 내용의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알찬 영상뉴스를 끊임없이 보도하는 현장의 재구성을 기대합니다.

- 횡재세 논란에 대한 후속 심층 보도의 아쉬움, 2월 7일 보도된 '난방비 대란'에 횡재세 재부상...정유사 "우리와 무관"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면서 이 논란이 쉽게 잠잠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횡재세 논란이 아직까지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뉴스 보도 직후 정유업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수 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기부했다는 관련 뉴스가 수많은 매체에 보도가 됐는지라 일각에서는 정유업계에서 기업 사회공헌을 통해 횡재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뉴스의 후속 보도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아직 볼 수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충돌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관심 역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영언론인 연합뉴스TV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해 증진을 위한 심층 보도, 특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내용이 소개되는 취재가 이루어진다면, 연합뉴스TV 시청자들 비롯해 수많은 잠재적 시청자들의 뉴스 이용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정유사들 기부와 관련해서 횡재세를 외국 사례라든가 정치권의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작년 이미 하반기에 한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국제 파트에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유사의 기부 문제를 놓고 한 번 더 이게 다룰 타이밍인가는 좀 너무 간격이 좁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다루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정부 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재세의 도입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다음에 논란이 또 되면 그때는 시청자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시간이 이제 거의 한 2시간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가 정말 위원님들이 다양한 이슈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셨다는 점이 아주 놀라운 정도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연합뉴스TV에서 아주 솔직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지만 연합뉴스TV가 우리 시청자위원회를 아주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고 어떻게 임하시느지를 저희들이 또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아까 우리 서 위원님이 힐링 말씀 하셨는데 요즘은 참 힐링이 많이 필요한 시대 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